

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제품이 리콜되고 있나요?

국제 제품리콜에 대한 동향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

“ 금년부터 리콜에 관한 일반법인 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본격 시행되었다는데, 지금까지 리콜을 많이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리콜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았다. ”

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리콜사고 동향을 매주 분석하여 발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다.

리콜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로, 각 나라에서는 리콜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, 기업들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,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제공 사례가 미비한 상황이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금년 2월부터 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 및 TBT통합정보포털(www.knowtbt.kr), 협회 홈페이지(www.ksafety.kr)를 통해 국외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.

동향 보고서에는 제품명, 사업자명 및 연락처, 관련 사고사례, 규제기관의 조치사항 등 리콜 사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이 첨부되는 등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.(36page 참고)

기술표준원은 동 보고서의 주기적인 제공으로 사업자는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이를 참고하여 제품의 안전품질을 높일 수 있고, 일반 국민은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들과 그 위해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* 문의 :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(02-509-7241)